



장애인체육대회 광주 축구대표팀 '광주엔젤'

오는 9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광주 축구대표로 참가하게 될 '광주엔젤'과 선광학교 선수들이 지난 17일 연습 게임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축구 통해 세상과 소통해요”

정신지체 30여명 9월 대회 준비 구슬땀 몸 부대끼는 축구경기, 장애 치료 효과

휴일인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선광학교 운동장. 정규 축구장보다 작은 규모의 인조잔디가 깔린 이곳에 큼직한 축구 가방을 든 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에 호응회 소속 팀으로 창단했다. 창단 때부터 감독직을 맡고 있는 한동기(48·광주시 북구청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팀 7급 공무원) 감독은 “처음엔 풋살 대회에 참가해보겠다는 생

각으로 팀을 꾸리게 됐다”며 “자폐증상 등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는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선수들은 운동장을 열 지어 뛰면서 몸을 풀었다. 스트레칭과 2대1 공 주고받기를 끝낸 '광주엔젤' 선수들은 각자 포지션에 자리를 잡고 심판의 호각을 기다렸다. 연습을 하면서 장난을 치며 웃기도 하던 선수들의 얼굴은 대령이 갖춰져서 조금씩 진지해지고 있었다.

“동우, 확실하게 걸어내야지”, “패스를 좀 더 길게 하라 말아야”, “더 적극적으로 달려봐라”

양 팀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파이팅'을 주문했다. 선수들은 때론 헛발질을 하고, 입을 벌린 채 웃기도 하지만 감독의 불호령에 이를 약물었다.

한 감독은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 엄하게 대하는 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금세 탄 때 정신을 팔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 시작 10분여가 흐른 뒤 '광주엔젤'의 스트라이커 한성주(18·정신지체 3급)군의 첫 골이 터졌다. 다른 공격수 이상우(27·정신지체 1급)씨의 패스를 받아 가볍게 골문을 시켰다.

이날 게임의 최종 스코어는 5대2. '광주엔젤'

의 승리였다. 전후반 30분씩 총 60분을 뛰었지만, 선수를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별로 없어 보인다. 혼자서 4골을 넣은 한군은 “지난해 전국 체육대회 때는 4등을 차지해 아쉬웠다”며 “올해는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군의 꿈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축구를 하면서 여럿이 어울리는 법을 많이 배웠다고 한다.

이상우씨는 “선광학교 다닐 때 축구를 꾸준히 하다 졸업하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광주엔젤'이 생겨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한 감독은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게 마련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축구는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축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성공한 장애인의 사례를 접한 장애아 부모들이 종종 가입 문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오덕호

내 할 일 먼저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모처럼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남자는 아리따운 여인 앞에서 웬지 좀 빠지고 싶어졌다. 그래서 무개를 잡으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이 말에 여인은 조금 당황했으나 곧 이렇게 대답했다. “그 질문은 순서가 바뀌었군요. 제가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자가 당황했다. “아니, 당신이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 “그럼요. 제가 먼저 물어보아야지요. 제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저도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드리지요. 당신은 저와 결혼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벌어서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이 남자는 질문을 거꾸로 한 것이었다. 자기가 먼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좋은 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남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 자기가 먼저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난한다. 자기가 먼저 그것을 해주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자기는 공부하지 않고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고 비난한다.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지는 않고 비호어자라고 한탄만 한다.

많은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최선을 다해 생산하지 않고 대우가 낮다고 불평만 한다.

이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 쌀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밥이 되지만 쌀에 물을 붓지 않고 열만 가하면 아무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남에게 먼저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할 일을 해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서석교회 목사)

기독교인들 하루 24분 25초 기도

2005년보다 2분 35초 줄어

기독교인들의 기도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 목회'를 돕는 모임(회화영성회)을 창립한 교수이 전국의 기독교인 1천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24분 25초였다. 이는 2005년 한국기독교의 조사 결과인 27분보다 약 2분 35초가 더 줄어든 수치다.

설문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기도시간이 얼마냐는 질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응답부터 최고 210분까지 다양한 답을 했으며 평균 24분 25초였다. '일마중만 기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배 이상 많은 51분이라고 답했다. 기도를

하는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라고 답한 사람이 3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음'이 35.3%,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12.6%), '기도에 대한 의무감과 몸매 관리 때문'(6.9%), '사명감 때문'(6.5%) 등이었다.

기도의 내용과 제목은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45.3%가 '평상시 기도하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고 답했으며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지만 평상시 기도하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응답이 34.7%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호남불교문화원 오늘 개원

광주 무각사... '호남불교' 세미나

호남지역 불교문화와 문화를 지키고,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호남불교문화원 22일 문을 연다.

호남불교문화원은 22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내 광주불교문화원 2층 시민선방에서 '한국불교의 희망, 호남불교문화의 어제,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의행(광주불교문화대학 교수) 법사가 '문화사라 바라본 호남불교', 이재수(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

임연구원) 박사가 '호남불교문화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호남불교문화원은 앞으로 ▲호남불교문화의 재발견을 위한 연구사업 ▲불교문화교육 ▲정기간행물 및 지역불교 소식지 발간 등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호남불교문화원 이준영 실장은 “불교를 종교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우리의 친숙한 문화의 일부로서 인식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수많은 불교 문화들이 호남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세가 약하다는 사실도 개원의 이유”라고 말했다. 문의 062-389-3538. /정상필기자 camus@

'아동 성폭력' 심포지엄

28일 전남대병원 명학회관

전국 난청가족 교육캠프

내일부터 광주 적십자수련관

호남해마라기아센터(소장 신기숙)가 개소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내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교육 기관의 대처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광주시교육청 은근주 장학사가 '아동성폭력에 대한 교육기관의 대처 현황',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이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입', 전남대 심리학학과 윤가현 교수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내용과 방향'을 발제하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62-232-1375.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국난청인교육협회는 광주주대 언어치료학과 공동으로 23~24일 이틀 간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 적십자 청소년수련관에서 '제3회 전국 난청가족교육캠프'를 연다.

난청인 가족 200여명과 전국 대학생 8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 장애아동은 체육활동 및 체험학습 등을 하게 되고, 부모들은 언어치료, 난청 아동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강의 등을 듣게 된다. 보청기와 인공 와우(달팽이관) 수술 관련 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577-9575.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원도약국사거리 ♥애매1544-0600

M관 검은집 (18세)	최고급관
2관 오션스 13 (12세)	
3관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12세)	
4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5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6관 두번째 사랑 (18세)	
7관 검은집 (18세)	
8관 황진이 (15세) / 러브앤티트러블 (15세)	
9관 4.4.4 (18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데스위터 (15세)	
5관 슈렉3 (전체)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항동시영 영화사랑 ♥애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슈렉3 (전체/자막) / 러브앤티트러블 (15세)	
2관 (아린이전용관) 나루토 (전체/터널)	
3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4관 슈렉3 (전체/자막)	
5관 4.4.4 (18세)	
6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7관 검은집 (18세)	
8관 밀양 (15세)	
9관 황진이 (15세)	
10관 오션스 13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사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7개관) 절친리 상영중 상무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2관 두번째 사랑 (18세)	
3관 슈렉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오션스 13 (12세)	
7관 황진이 (15세)	
8관 메신저 (15세)	
9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타임렉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m ♥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오션스 13 (12세)	
2관 검은집 (18세)	
3관 황진이 (15세)	
4관 4.4.4 (18세)	
5관 슈렉3 (12세)	
6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이런 것만 봐도... **뜨거운 녀석들** (시범인 양민 주연) **정의를 위한 두 남자의 가혹없는 심판!** 영국 박스오피스 3주연속 1위

이런 것만 봐도... **4.4.4** 영국 박스오피스 3주연속 1위